

김종철 “기획조정실 방향 잘 잡아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2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조정실, 전북연구원,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목표달성과 보완점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철 위원장(전주7)은 “지사께서 강조하신 전북 뭉치기에 전력을 다해줄 것과 대통령이 약속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등 도 현안문제 해결에 기획조정실이 중심을 잡고 방향을 잘 이끌어 주기”를 당부

도의회 행사위, 기획조정실 전북연구원 감사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최영일 “자치법규 적기 정비” 이도영 “전북연구원, 실국과 협조”

했다. 최영일 부위원장(순창)은 “실효성 없는 사항,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 등 자치입법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급속한 행정 환경 변화에 뒤처지지 않게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여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통한 도민 만족 행정서비스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도영 부위원장(전주2)은 “전북연구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연구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반영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연구에만

력,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지방분권 균형발전 시대를 앞당겨 줄 것”을 촉구했다.

정호영 의원(김제1) “지방교부세 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재원 확대를 위해 현 정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고창기부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반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남주 의원(비례)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한 감사관실의 노고에 도민인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부패고리 차단 등 공직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전북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도와주자”

조만규 고창군의회 산건위원장 5분 자유발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의 방치로 인한 헌정 공백 더 이상 안됩니다.”

11일 제24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개원과 함께 5분 자유발언에서 조만규 산업건설위원장(사진)이 단정 메시지다.



또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고창군민과 재외군민 모두 도와주길 호소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의 임명이 거둬들인 악재로 인해 장기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출신지역인 고창군 주민들은 “훌륭한 인사에 대하여 능력과 자질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명자에게 힘을 실어줄과 동시에 여당을 비롯하여 지명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 및 G20 정상회담 등의 이슈로 잠시 잊혀졌던 주요인원에서도 최근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조만규 산업건설위원장은 “고창군과 군의회 등 정치권,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를 비롯한 군민의 뜻을 모아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동의의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관영 “군산을 특별 고용재난 지역 지정 추진”

국민의당 비대위 군산조선소 현장회의 발언
“조선소 재가동 · 전북대병원 세워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12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앞에서 개최된 전북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촉구하며 군산지역의 고용재난 지역 지정 의지를 표명했다.



김관영 의원

김 의원은 군산조선소를 현장 방문해 “오늘 절박함을 가지고 국민의당 지도부가 이곳을 방문했다”며 “앞으로 작년부터 있었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의한 다양한 지원뿐 아니라 이곳 군산지역 전체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까지도 같이 의논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군산 현대조선소 뿐 아니라 2011년도 한국GM 군산공장이 약 6조 원 정도의 생산량을 기록했지만 작년 기준 7천억 원 정도로 5조 원 이상의 연 생산량이 감소되었다”고 말하며 “이 부분도 군산조선소의 폐쇄 못지않게 그 이상의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군산지역 전체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를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군산전북대학병원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군산전북대학병원은 2012년도의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지금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전북대병원 측이 최근에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전북대병원에 대한 자체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있다”며 “군산전북대학병원은 기존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단순히 상급병원 하나가 들어서는 의료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넘어서서 위기의 군산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뿐만 아니라 새만금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들이 12일 오전 군산시 현대중공업 조선소 앞 노상 천막에서 현장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들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 내 요구사항 및 여론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해 정부에 적극 반영을 요구할 방침이다.

사업의 성과도 직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군산전북대학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병원으로 해서 이 경우 1100명이 넘는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위기감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전북대병원 신설은 군산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군산조선소 중단으로 상심이 큰 지역주민들에게 군산

전북대병원은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다시 한 번 정부의 군산전북대학병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촉구한다. 현재 전체 사업비의 30%로 되어 있는 국고보조율을 50%이상으로 높여서라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군산전북대학병원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군산조선소가 폐쇄될 상황에서도 정부는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다. 거제바다와 군산바다가 왜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전복을, 전북을 저버렸지만 국민의당은 전북과 군산을 살리는데 앞장서겠다.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교통법치금 · 과태료 교통안전사업 투입”

김관영,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 제정안 발의

연이은 빗길 교통사고 뉴스로 교통안전 시설·문화 개선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 국민의당)이 교통법치금 · 과태료를 교통시설 개선, 교육 등 교통안전증진관계 사업에 전액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 제정안을 12일 국회에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4,292명·부상자 180만명 등 여전히 교통안전후진국 오명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계 사업 예산은 감소추세이고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경우 법치금과 과태료의 도입 취지도 살리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로 교통안전진척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청과 지자체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예산 수요에 정부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돼 왔음에도 여건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5만 6,734건의 교통안전 시설개선 사업을 신청한 경찰청은 올해 124억원을 배정받았다. 이 예산은 2012년 911억 원 대비 7분의 1에 불과해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방증한다.

반면, 교통법치금·과태료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다. 간접 증세 논란까지 있다. 2012년 5523억원, 2013년 5946억원, 2014년 6798억원, 2015년 743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전액 교통안전에 투자한다면,罰수 증세 논란도 불식하고 단속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국내 교통안전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특별회계법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법안에는 교통법치금·과태료 전액을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개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교통관리, 교통안전 교육, 홍보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3년부터 4년간 동 제정안의 취지를 담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사망률을 14.0% 하락시켜 특별회계 도입의 효과를 기대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김진성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울영상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서울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울영상